

미래먹거리 창업 요람 '스타트업 파크' 조성

시, 광주역 인근 1만2000㎡...2024년까지 500억 투입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 기업 지원...보육·주거 공간도

광주시에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8일 "정부 공모 등을 통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 기업 지원과 주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GST)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00억여원을 들여 광주역 인근에 연면적 1만2000여㎡ 규모 시설을 갖추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학교 등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AI산업과 제조 산업의 융합, 입주 보육,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으로 창업 기

업의 요람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법인 설립, 사무실 개소를 약속한 이전 기업의 도시철도 노선 내 도심 선호경향 등을 반영했다. 시는 또 쇠락한 광주역 일대 도심 재생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비 중 40~50%를 국비로 확보하기로 하고 정부 부처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이뤄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인근에 연면적 1만2000여㎡ 규모의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 기업 지원과 주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관계자는 "스타트업 파크 주변에 단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일자리 지원 주택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곽이 아닌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시

설을 집적해 혁신 기업 지원 인프라와 친환경 정주 여건이 결합한 스타트업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대 총장협의회 포럼 개최
광주-전남 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제3회 지역사회 포럼이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김혁중 광주-전남 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내년 상반기 '전남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중

전남도가 내년 상반기 신설을 목표로 가칭 '전남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일자리 사업 발굴·기획·실행·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임직원 40명 안팎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

고 행정안전부 협의, 관련 조례 및 규정 제정, 임직원 공모, 설립 허가 및 등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이 목표다.

신설될 일자리 재단은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특히 민선 7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남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 수행은 물론 맞춤형 취·창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전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

불어민주당·목포2)은 이날 전남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신설될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정책의 총괄 콘트롤타워로 중장기 계획 수립 ▲일자리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조정자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재단 설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합, 고용승계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의회 추경 처리 임사회

전남도의회는 28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긴급 처리를 위한 임사회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사회에서 심의할 추경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451억원이 증액된 9조 4893억원으로, 지난 3일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분야 2776억원, 한국판 뉴딜 분야 369억원, 내수·수출 활성화 분야 186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분야 105억원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수돗물 위생상태 '양호'

정수장 등 시설 긴급점검

전남도는 지난 27일 송상락 행정부지사 주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내 정수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위생·운영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 등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출 발생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송상락 행정부지사는 목포시와 영암군 소재 정수장을 직접 방문해 정수

장 시설의 청결 상태와 정수 과정, 소독·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앞서 전남도는 유출이 발생된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과 같은 공법(입상 활성탄 공정)으로 운영중인 고흥 호형정수장을 비롯 전남도내 정수장 77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829개소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상태 등 점검을 모두 마쳐 수도시설 유출 발생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취약계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전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에 들어간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에 따라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 휴·폐업을 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 프리랜서, 청년,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지원은 8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4개월

간, 시급 8590원을 적용해 월 평균 70~13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총 1만37명 대상으로 4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생활방역 지원과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개 유형이다.

참여신청은 시·군청 일자리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달말까지 하면 된다.

백택후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자 증가와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7명 지원

광주시는 "21~27일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 공개모집 결과, 7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들은 광주와 전남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었으며,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다음 달 4일 발표하고 면접 심사는 같은 달 10일로 예정됐다. 임원추천위는 심층 면접을 통해 2배

수 이상 임용 후보자를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2배수로 압축해 이용섭 시장에게 추천한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윤기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9월 만료된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연말까지 전기·수소 시내버스 33대 확대 운행

광주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연말까지 전기 시내버스 27대와 수소 시내버스 6대를 도입해 확대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전기 저상버스 9대를 신규 도입해 매월06(1대), 점단09(1대), 봉선27(2대), 윤림51(3대), 금남59(1대), 점단95(1대)번 등 6개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더하면 총 8개 노선에 19대의 전기 시내버스가 광주 시내를 다니고 있다.

연말까지 전기버스 18대를 장동·월남 공영차고지와 도산동 차고지 등에 추가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수소 시내버스를 6대 도입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